

원고 12 1967.7

## 律法과 예수

### 1. 유대교와 율법

유대교에서 율법(Tora)이라고 하면 구약 처음 다섯권에 있는 모세의 법을 뜻한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과거에 주어진 유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指示로 믿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은 아무리 상세해도 변화무쌍한 삶을 전부 규정할 수 없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율법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 시키기 위해서는 根幹인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細分化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그 율법의 해석이 필요하며 그러므로 本法에 어긋나지 않은 생활 규범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다. 저들은 가령 안식일은 쉬라고 한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일에 속하는지를 규명해야 했으며 또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법을 준

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결하며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오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정의해야 했다. 따라서 그러한 세칙이 날이 갈수록 얼마나 加重되었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그 有効期間은 無限하기 때문에 실제 生活에 모순이 왔을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율법 자체와 꼭 같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은 다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유전(Tradition)이라고 하는데 「미쉬나」(Mischna)와 「탈문」(Talmud)에 수록 되어 있다.

저들은(랍비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설정한 것 即 先在的이라고 主張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이 율법에 있어서만 그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人間은 오직 이것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걸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들의 삶全體는 오직 이 율법에 依해서 규정됐다. 그중에 특히 할례, 안식일, 그리고 淨潔의 法같은 것은 유대人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의무였으며 그날 그날의 삶에서 기도 예배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법에 따라 살아야 하며 例外는 인정되지 않는다. 저들은 이 율법은 遵守할 수 없다는 생각은 허락하지 않는다. 저들은 그들의 先祖가 다 이것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꼭 지킬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박에 없다고 선언했다. 反面에 저들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 좋은 業績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며 義人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러한 율법 절대주의는 물론 他民族에 대해서 排他的일 수 밖에 없었으며 異邦人과의 접촉에 많은 충들을 가져왔다. 가령 安息日 준수나 음식에 대한 정결의 법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行爲하거나 食卓을 함께 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저들은 로마 植民地로 있으면서도 저들의 軍事的義務는 끝끝내 拒否했으며 비록 이방에 사는 유대人들도 저들과의 접촉에서 選民思想을 一貫했다. 그러나 反面에 저들은 그들의 律法을 他民族에게도 有効한 唯一한 삶의 길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努力을 했다. 가령 모세를

唯一한 세계 道德의 教師로 내세우는 일 또는 율법을 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세계화를 꾀했다. 「필로」(Philo)나 「요셉스」(Josephus)같은 이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의 律法性(Gesetzlichkeit)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開放의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律法을 유대人全體가 그 본뜻대로 지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많은 탈락자가 생겼다. 그들은 저들을 적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疎外해 버리므로써 異邦人과 같이 취급됐다. 유대人全體가 律法에 充實하지 못한 증거는 이 율법을 우리만이라도 充實히 지켜야 한다는 그룹들이 생겨 난데서 알 수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人이다. 저들은 스스로 民衆에 대해서 「구별된자」로 自處하고 律法을 철저히 지켜 나갔다. 옛세에 派나 콤란宗派도 그런 그룹중의 하나로서 모든 律法을 기록된 것보다 이상으로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저들은 종말적인 사상과 결부 시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철저한 율법 연구와 고수를 實行하기 위해서 유대人 안에서 또 구별된 共同體를 組織 했든 것이 다.

律法! 그것은 絶對의이며 同時에 永遠한 法則이다. 이런 뜻에서 랍비 R. 요한난(Jochanan)같은 者는 豫言도 폐하고 구약의 다른 文書도 없어

절지라도 모세의 法만은 永遠히 남을 것이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每日 첫 時間은 律法을 研究한다고 했으며 장차 메시야가 오면 다른 새 계명을 가져 올 것이 아니고 이 律法을 연구해서 宇宙化할 것이라고 했다. “두사람이 앉아서 律法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문다” 이것이 저들의 信念이었다.”

## 2. 원시교회와 律法

원시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과 자유한 경향의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긴장성은 특히 마태복음에 현저히 나타나 있으며 이것을 다른 복음들과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그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몇가지 예를 들어서 두 다른 경향을 제시하므로써 예수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데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 마태 5장 17~20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中心되는 구절은 18절인데 原文대로 번역하면 “천지가 없어질 지언정 모든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이다. 「کم엔」은 이 구절은 유대교의 신념과 똑같은 것으로서 히브리의 알파벳의 가장 작은 점이나 획 하나도 결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

다.” 그러한 理解는 그 다음 구절이 뒷받침 한다. 즉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느냐는 최후의 심판(하늘나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후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모세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된다. 학자들 중에는 마지막 구절로 된 ‘모든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을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의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라고 해석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종말적인 事件으로 받아 드리는 者에게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다음의 구절은 이런 이해를 용납 하지 않는다. 이구절은 分明하게 율법의 有効性を 強力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마태 저자 개인의 입장인가?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복음에서도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16, 17). 즉 이 말씀은 語錄(Q)에 있던 것이다. 이것은 원시교회에

律法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有効하다는 主張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누가 복음은 마태와의 差異를 보여준다. 누가의 것을 原文대로 번역하면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 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이다. 이것을 마태의 구절과 비교하면 다음의 두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마태의 것은 율법의 永遠한 有効性を 나타낸데 대

해서 누가는 율법의 적은 부분이라  
도 無視하기는 極히 어려운 일이라  
는 뜻으로서 절대성을 약화 시켰다.  
둘째는 「모든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  
지」라는 副句가 없다. 이것과 관련  
해서 더 중요한 차이는 마태는 18절  
앞뒤로 율법의 有効性을 주장한데  
대해서 누가에는 그런 구절이 어디  
에도 없고 바로 그 말 앞에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요한 까지다”라는  
말로 율법의 한계성을 미리 못 박아  
놓았다는 점이다.” 마태에도 이말이  
수록 되었으나 그렇게 한계점으로  
금 그어 놓지 않고(마태 11, 13 참  
조) 오히려 그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율법의 시대는 세례요한때까  
지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로 부터 율  
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마태 5, 18절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이 입장도 누가 개인의  
입장이 아닌 것은 비록 약간의 변동  
은 있으나 마태에도 수록 된 것으로  
알 수 있다(即 Q자료다).

이상의 고찰만으로도 다음의 두가  
지 사실이 확실해 진다. 하나는 위  
에서 이미 말한대로 원시교회의 對  
律法태도에 두 다른 立場이 엄연하  
게 있었다는 점과 둘째는 마태와 누  
가 자신들도 율법에 대해서 다른 입  
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에 마태 5장 17절의  
뜻이 理解된다.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율  
법은 이 이상 더 필요 없다는 주장  
이 있는것을 전제하고 그 반대의 입  
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볼트만」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은  
분석의 결과 마태 5장 17, 18절은  
예수에게 돌릴 수 없고 율법에 대해  
서 보수적인 판테스틴(예루살렘)교단  
과 헬레네적(이방)교단의 자유주  
의의 대결에서 온 소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볼트만은 마태적인 입장이 반  
듯이 예수의 율법에 대한 태도와 상  
반된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  
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에게 율  
법의 권위는 너무나 自明的이어서 율  
법에 대한 이러한 재확인 은 부합되  
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율법에 대  
한 원시교회의 두 조류는 예수의 태  
도와 상관없이 원시교회의 상황에依  
해서만 派生된 것일까? 지금까지 대  
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율법관은 예  
수의 교훈을 전혀 引用하거나 또는  
그의 태도에서 논증을 求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독자적인것이라  
는 결론을 내려왔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은 그 個人的 소산이라고 볼 수  
는 없고 적어도 그가 기독교를 받아  
드린 교단의 「케리그마」에 근거한 것  
이다. 따라서 그의 율법관은 적어도  
한 교단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 그러면 그 교단은 예수의  
태도와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그입장  
을 결정 했을까? 또 판테스틴 교단



은 예수의 태도에 대한 아무런 考慮 없이 유대교의 傳統을 그대로 고수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들은 각각 예수의 대 율법 태도를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依해서 그러한 立場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까? 이러한 물음을 전체 하면서 예수의 율법 내지 유대교 전통에 대한 태도를 보기로 하자

### 3. 예수와 율법(유대교 전통)

공관서의 기록에 依하면 구약의 율법 또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결코 一律的이 아니며 때로 모순으로 보이는 표현들과 태도가 엮여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훈을 묻는 사람에게 단순히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십계명중의 一部를 말한다(마태 19:17). 이것은 모세의 律法外에 어떤 다른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마가(10, 19)나 누가(18, 20)에서는 묻는 자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한 표현이다. 또는 제일 큰(또는 첫째) 계명을 묻는 대담으로 구약의 두 계명을 인용하는데 끝인다(마가 12:32 이하). 그의 대답은 율법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공관서가 그의 생활을 보도한 것을 보아도 律法으로 쪼여진 유대경건 생

활의 규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가령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마가 1, 21 병행; 14, 49 병행 등) 安息日에 다른 유대人 처럼 회당을 찾았으며(마가 6, 2) 또 유대교의 경건생활의 三大要素인 구제, 기도, 금식이 율법화 되었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참 구제와 어떻게 금식할 것과 참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 또는 정결의 법도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는 절차를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마가 1, 44). 「슈니빈트」는 예수가 랍비들과 같이 옷단에 성구를 기록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5)</sup>

또한 복음가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박해자였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反面에 누가·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초대한 장면을 여러차례 보도하고 있으며(7, 36; 11, 37; 14, 1)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려져 피신을 권하는 바리새人 얘기 까지 있다(누가 13, 31).

惡意로써 예수에게 질문하는 바리새人이나 서기관의 보도가 있는 반면에 아무런 敵意없이 진정으로 예수에게 묻는 장면도 있으며(누가 17, 20), 예수의 교훈에 그대로 행복해 버리는 장면도 있다(마태 15, 12).

마가 2, 16~17 절에는 예수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것을 분개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보도가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 참석했을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데 다른 寫本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sup>6)</sup> 이러한 일연의 사실들은 적어도 예수에게 율법사들과 공통된 面이 있었음을 말한다. 反面에 비록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人을 공격하는 말들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저들이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내세우면서 實行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 以上の 기록들이 예수의 태도의 一斷面이라고 나타낸 것이라면 바울의 말과 같이 예수는 율법 아래(Huepo Nomon)난 자로써 율법을 충실히 지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시 교회가 예수의 이 같은 面에서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거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예수가 유대교전통, 나가서는 율법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 기록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山上垂訓의 “너이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의 형식으로 된 여섯가지 對句는 율법에 대한 정면 충돌 내지 수정이다(후에 재론). 이것은 바로 그 위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엮고 있다. 또 정경 논쟁, 이혼법 그리고

安息日論爭등에서는 모세의 권위, 율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 온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후에 재론). 또는 금식문제에 대한 예수의 응수(마가 2, 29 이하, 병행), 성전에 대한 발언(마가 13, 2 병행; 마가 14, 58) 같은것은 경전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은 발언이다. 사실상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바로 律法문제가 그 中心要因으로 보도 되어 있다. 더욱이 무엇보다 당시의 율법상으로 소외되어 격리해야 하는 소위 죄인들과의 자유한 교류는 율법 주의자들의 분노의 극치를 이루게 한 행위다. 그는 때로 유대교 전통도 율법도 眼中에 없는 듯한 行爲를 자행했으며 율법의 활용을 위해서 형성되어 그것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 「유전」을 명확하게 거부해 버린다(마가 7, 9 이하, 마가 15, 6). 이러한 일연의 기록들을 보면 누가 16, 16에 있는 말대로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고 예수는 이미 그 범주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런 面에 착안했다면 원시교회에서 율법無用論이 대두 할만도 하다. 하여간 예수의 대 율법 태도는 「슈니빈트」의 말대로 “율법을(때로)전적으로 긍정하고(때로)전적으로 부정하는” 양극단의 모순을 보인다.

이상의 간단한 서술은 복음서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공판서의 기록이 원시

교단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신학에 依해서 변형 되지 않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 해야 비로소 예수의 입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本論에 미루기로 한다. 그러나 이 상에서 다음의 사실이 밝혀진다: 그것은 원시 교회에서 예수의 대 율법 태도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있었으며 복음 기자들은 이미 꽤다른 전승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복음 기자들은 이 다른 전승자료들을 편집했기 때문에 비록 복음 기자들 자신의 입장에서 약간의 수정을 꾀했으나 그 자료들 간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 전제 한대로 우리가 만일 이 전승 자료들의 두면을 교회의 소산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게 다른 兩面을 예수에게 돌린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다시 말하면 만일 예수 자신이 일반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때로는 그처럼 파괴적이 었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 했을까?

예수는 율법자체의 권위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달리 한데서 온 결과일까? 확실히 예수는 율법의 해석을 달리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율법에 “어떤 것이 계명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계명된 내용에 대한 내적인 긍정에서 하는 복종”을 요구한다. 마태는 예수를 율법의 재해석자이며 그 완성자로 나

타내고 있다. 이미 지적한 5, 17절에서 그는 예수를 율법의 완성자로 전제했고 그의 가르침 뒤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라는 말맺음으로(7, 12; 22, 40)서 예수의 교훈은 결국 율법의 본뜻을 해석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마태에만 있음). 그러나 예수는 어떤 律法은 전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또 그의 다른 많은 교훈은 律法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며 그런것이 오히려 그 中心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예수는 律法을 유효한것과 불필요한것을 취사 선택했는가? 구체적으로; 제사적(Cult)인 율법은 거부하고 윤리적인 율법만을 고수 했는가? 아니! 그는 윤리적인 율법도 거부 했으며(이혼의 법) 제사적인 율법도 다 배척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런 태도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전체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율법의 권위를 파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유대교의 율법 해석자의 반열에 넣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율법파괴를 일삼는 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는 율법을 긍정할 때나 또는 거부할 때에도 그 율법의 재해석에서 또는 다른 율법을 발판으로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는 율법을 긍정할 때에나 율법을 거부할 때에나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自明的, 아니 오히려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이었

다. 이 사실은 그가 율법을 파괴할 때에도 “파괴를 위한 파괴”는 아니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율법자체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전혀 그것밖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 율법밖의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外的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또는 理性的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인가? ‘또는 새로운 율법’을 설정 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인가?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없고 고려할 여지도 없다. 그러던 무엇에서 일가? 이것이 본연구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여기서 총괄적인 결론부터 말하면 율법에 대한 예수의 “자유한” 태도는 아무런 것에도 제한 되지 않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 ‘본캄’은 이중계명(二重戒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그에게(예수)이 하나님의 뜻은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자들을 비판 할수 있었다.” “예수의 선교에 있어서 이일(本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구별)은 강력하게 아무런 주저도 없이 일관 됐는데 이것은 물론 비판적인 이성의 입장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재한 뜻 때문이다.”<sup>9)</sup>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다음에 율법에 대한 말씀들에서 밝혀 보기로 하자.

# — 註 —

- 1) 유대 律法에 대해서 : W. Bousset; Die Religion des Judentums 1926, 119ff  
G.F. Moore, Judaism 1, 251ff.
- 2) ZNW 1934 127 면.
- 3) 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1957, 14면 이하, T.W. Manson, Sayings of Jesus, 1957, 154 면 참조. Manson 은 누가의 것이 原型이라고 한다.
- 4) Bultmann 同上 146 면.
- 5) 마태 9, 20; 누가 8, 44 에 나오는 “Kraspedon”이란 율법을 기록한 “옷단”인데 신명기 15 : 38 이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J. Schniewind,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112면 이하 참조.
- 6) 바리새人과의 관계는 M. Goguel의 Das Leben Jesu(독역 1934), 219 면 이하 참조.
- 7) H. Braun, Spätjüdisch-häretischer und Frühchristlicher Radikalismus. Bd II. 1957. s.43.
- 8) E. Lohmeyer, Kultus und Evangelium, 1942, 96 면.
- 9) G. Bornkamm: Jesus von Nazarets (1959) s.91f 면 또한 Bultmann: Die Bedeutung des geschichtlichen Jesus für die Theologie des Paulus.(그의 논문집 Glauben und Verstehen 1 권 195 면

—다음호 계속—